

축협조합 경영개선대책 수립

육성대상 지역·업종조합선정 육성자금 지원 희생가능성 없는 부실조합은 해산·합병추진

농림부는 6월2일 '97년도에 축협조합육성자금 1천억원을 90개조합에 지원하고 부실조합에 대하여는 특별경영진단과 경영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협조합경영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와같이 경영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 것은 적자조합 및 자본 잠식 조합이 매년 늘어나는 등 축협조합의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 축협이 축산업의 경쟁력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나 축협조합의 자구노력과 중앙회의 지원만으로는 경영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축협과 협의아래 축협조합 경영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우선, 축협조합에 대한 단계별 경영혁신제도(벤치마킹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업종조합별로 바람직한 모델지표를 마련하고 동지표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 육성대상 조합을 선정하여 1단계('97-'99년)로 '97년도에 조성한 조합육성자금 1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육성대상 조합에 대해서는 축협중앙회에서 매분기별

로 '99년까지 경영개선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경영컨설팅을 실시해 나가며 1단계 사업실적을 종합평가한 결과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2단계(2000-2002)와 3단계(2003-2006) 조합육성 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96년도에 자본잠식과 적자가 발생한 58개 조합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기관과 축협중앙회에서 특별경영진단을 실시한 후 경영정상화 방안을 권고하고 해당 조합에 경영개선계획서와 이행각서를 제출토록 하여 그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지도·점검해 나가며, 경영개선이 부진한 조합에 대해서는 육성자금을 회수하고 정부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경영개선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조합장등 간부직원의 경영의식 및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워크숍, 연찬회등을 강화하고 축협중앙회에 순회교육단을 설치·운영하는 물론 교육추진체계를 일원화하여 교육을 통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회내의 회원조합 지도조직을 개편·보강하기 위하여 중앙회 임직원, 조합장, 학계전문가, 농림부 관계자등으로 구성

된 「축협조합경영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회원지원부 인력을 4명(대리2, 직원2) 보강하여 현재 21명을 25명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중앙회 비회원 7개 조합에 대하여 운영상황을 금년 10월까지 조사하여 운영부실조합에 대하여는 축협법 제142조에 의거

해산명령을 하고 경영개선 가능성이 있는 조합은 회원조합으로 가입시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경영개선 실적이 부진하여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 조합에 대하여는 합병추진을 유도하고, 축협관련 제도 및 조직을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 개편할 계획이다.

앞으로 축협중앙회에서는 6월10일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월말까지는 대상조합을 선정하여 사업계획서 평가, 부실조합특별경영단을 실시한 후 8월말까지는 축협조합육성자금을 대상조합에 지원할 계획이다.

을 위하여 성장축진 비료 1,153톤을 염면시비 및 지상살포를 이미 완료했다.

또한 집중방제기간 동안 연 850대의 헬기를 동원하여 염면 시비 및 항공방제를 실시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의 기동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고, 생물학적 방제의 일환으로 위생간벌, 솔잎혹파리 먹좀벌 등 천적을 소나무 숲에 방사하여 소나무 숲이 생태적으로 안정을 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소나무 숲을 살리는 것은 민족의 자존심을 살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앞으로 솔잎혹파리의 피해를 받더라도 피해가 약하고 재성력이 강한 내충성 소나무 개체 선발 육성을 임목 육종연구소에서 연구 수행중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3~4년간의 지속적인 종합방제를 실시할 경우 솔잎혹파리는 완전 정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솔잎혹파리는 1929년 전남 목포와 서울 창경궁에서 최초 발견되어 1982년 이후 전국적으로 번져 그 피해가 심각한 실정에 있으며, 특히 1995년 강원도와 경북 북부지방에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솔잎혹파리 피해 양상은 유충이 솔잎 밑부분에 벌레혹을 만들고 그 속에서 수액을 빨아

먹어 잎의 생장이 중지되면서 그 해에 변색이 되면서 소나무는 생장을 멈추고 서서히 죽게 된다. 솔잎혹파리는 최초 침입 후 약 7년을 전후 하여 피해가 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림청, 소나무 살리기 총력전 6~8월 솔잎혹파리 집중방제기간 항공방제 꿀벌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

산림청은 강원도 횡성군, 평창군, 영동고속도로 주변 등 1만2천ha의 소나무 숲이 솔잎혹파리로부터 피해를 입는 등 전국적으로 솔잎혹파리 피해가 심한 26만ha의 소나무 숲을 살리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산림병해충 집중방제기간』으로 정하고 총5백85억원을 투입한 소나무 숲 살리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환경변화로 산림병해충 피해가 예년 보다 10일 정도 일찍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소나무 숲을 되살리기 위하여 전

국적으로 8,600여명을 투입하여 솔잎혹파리 발생 기동예찰을 하는 한편 시·군·구, 지방산림관리청 등에 281개소 산림병해충대책본부를 설치, 신속한 방제태세에 돌입한 상태이므로 여름농장 피해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산림청은 산림병해충 피해가 산불피해(5,561ha) 규모보다 훨씬 커서 전 산림면적의 6%에 해당하는 37만ha에 이른다고 밝히고 지난 5월까지 솔잎혹파리 피해를 입어 수세가 약해진 소나무의 원기회복과 생장촉진

피투(P₂) 신제품 생산판매

하절기 새로운 제조기술에 의해 생산된 P₂ 신제품은 금년봄 생산된 일부 제품의 단점을 완벽한 실험하에 보완시킴으로서 가시응애 및 꿀벌진드기를 100% 구제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제품입니다. 가시응애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봉군은 P₂스트립의 교환시기를 10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처리하십시오

- ① 탁월한 효과와 저렴한 가격
- ② 편리한 사용법
- ③ 소상 전면에 부착하므로 소비 취급에 편리
- ④ 1회 사용으로 장기간의 방제효과 지속
- ⑤ 꿀벌과 사용자에 대한 안전성

가시응애 및 꿀벌진드기의 시작과 마지막 구제시기인 2월부터 11월은 금년과 내년도까지 양방사업의 승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시응애 피해, P₂로 해방될수 있는 기회를 잡으십시오!

제품 제조원

(주) 대성미생물연구소
(주) 한 동
(주) 중앙케미칼

판매원(전국총판) ... 한국 유일의 봉기구 전문 생산업체

고려양봉원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35-16
☎ 053-424-8252 · 5040, FAX 053-425-1310

은행 온라인구좌번호
(예금주:고상인)
●농협 703-01-004324
●우체국 700039-0106059
●국민은행601-01-0018-266